

# 광주은행 '브랜드파워' 지방은행 부문 7년 연속 1위

### 신뢰성·이용 편리성·소셜 긍정도 등 로열티 항목에서 높은 평가 지역 재투자 평가 3년 연속 1위...매년 순이익 10% 지역사회 환원

광주·전남 향토은행 광주은행이 7년 연속 지방은행 '브랜드파워' 1위를 차지하는 금자탑을 쌓았다.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지속적인 기업혁신과 지역상생, 나눔가치 확산 등을 통해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K-BPI)' 지방은행 부문에서 7년 연속 1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이뤘다. 광주은행은 23일 본점 대강당에서 '2024년도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 지방은행 부문 1위 인증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증식에는 고병일 광주은행장, 박만 노동조합 위원장, 이립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 상무 등 관계자와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올해 26회째를 맞은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는 KMAC가 국내 최초로 개발한 브랜드관리 모델로서, 국내 소비생활을 대표하는 소비자·내구재·서비스 등 240여개 산업의 제품 및 서비스, 기업의 브랜드 경쟁력을 평가하는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평가제도다. 평가는 서울시와 6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소비자 1만2500여명을 대상으로 1대 1 개별면접 조사를 통해 이뤄진다. 광주은행은 지난 2016년 처음 실시된 지방은행 부문에서, 2018년부터 올해까지 7년 연속 1위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광주은행은 고금리 등 국내 금융산업 위기 속에

서도 신뢰성, 이용 편리성, 소셜 긍정도 등 로열티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더불어 국내 최고 공신력을 지닌 브랜드 평가지표에서 이 같은 결과를 내면서 지역 내 명실상부한 금융 우수 브랜드로 입지를 다졌을 뿐만 아니라, '광주은행'이라는 브랜드를 금융서비스 소비자들에게 인식시키고 인정을 받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광주은행은 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매년 공개하고 있는 '지역 재투자 평가'에서도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달성했다. 지역 재투자 평가는 지역 예금을 받는 지방은행들이 지역경제 성장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가리키는 지표로, 광주은행의 지역 경제 환원 및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등 지역 상생발전에서 공인받은 것을 뜻한다. 실제 광주은행은 최근 5년간 총 1000억원 이상의 자금을 사회공헌활동에 투입하고, 매년 당기순이익의 10% 이상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등 지역과 상생하는 나눔·봉사의 기업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 광주은행은 그동안 (재)광주은행장학회를 통해 지역 장학생 4600여명에게 39억원 상당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지역 어린이 및 청소년들을 지속적으로 후원해왔다. 지역인재 양성, 소외계층 후원, 지역 문화 예술 및



23일 광주은행 본점 대강당에서 열린 '2024년도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 지방은행 1위 인증식에서 고병일 광주은행장(왼쪽 여덟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스포츠 후원, 지역사회 봉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한 결과 지난 2022년에는 광주·전남지역 최초로 대한적십자사 10억 기부클럽에 가입하기도 했다. KMAC 관계자는 이날 인증식에서 "광주은행은 금융소비자들로부터 '친절하고 믿음이 가는 은행', '지역과 상생하는 은행'으로 신뢰받고 있다"면서 "지역 내 탄탄한 영업력과 디지털뱅킹에 대한 지속

적인 혁신,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최선을 다하는 임직원들의 노력이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 지방은행 부문 7년 연속 1위라는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며 수상을 축하했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7년 연속 1위라는 영광은 광주은행이 그동안 지역 대표은행으로서 지역사회 문제에 공감하고, 지역민이 필요로 하는 적시에 바빠

른 금융지원을 실시해왔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지역사회를 위해 실현해온 선한 영향력들이 광주은행 브랜드에 힘을 실어준 결과로 생각한다"며 "광주은행은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 성장하고 '지속가능한' 경쟁력 있는 브랜드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고물가에 쪼그라든 가계...가구 실질소득 7년 만에 최대 감소

### 1분기 가계 실질소득 1.6% ↓ 실질소득 통계작성 후 최대 낙폭

올해 1분기 가구 실질소득이 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목소득 증가세에도 물가가 더 큰 폭으로 오른 결과다. 올해 초 대기업 상여금 감소 영향으로 실질 근로소득이 2006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줄며 가구 소득 감소세를 견인했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024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가구당(1인 이상 가구·농림어가 포함) 월평균 소득은 512만2000원으로 1년 전보다 1.4% 증가했다. 가계소득은 3개 분기 연속 증가했지만 증가 폭은 전 분기(3.9%)보다 크게 둔화했다. 가장 비중이 큰 근로소득(329만1000원)이 1.1% 줄어든 영향이 컸다. 가계 근로소득은 지난해 대기업 실적 부진에 따른 상여금 감소 영향으로

2021년 1분기(-1.3%) 이후 3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반면 사업소득(87만5000원)은 임대소득 증가, 농산물 가격 상승에 따른 농업소득 증대 등 영향으로 8.9% 늘었다. 이전소득(81만8000원)도 국민기초연금 수급액 인상, 부모급여 확대 등으로 5.8% 증가했다. 명목소득 증가에도 물가를 반영한 가계 실질소득은 1년 전보다 1.6% 감소했다. 1분기 기준 2021년(-1.0%) 이후 3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으로 2017년 1분기(-2.5%) 이후 7년 만에 가장 큰 폭의 감소세다. 실질 근로소득은 3.9% 줄며 감소세를 주도했다. 1인 가구를 포함해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이다. 이진석 통계청 가계동향수시과장은 "물가만큼 소득이 늘지 않았기 때문에 가구 실질소득이 마이너스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가구 월평균 소비지출은 290만8000원으로 1년

전보다 3.0% 늘었다. 비소비지출은 이자 비용 증가 등 영향으로 1.2% 늘어난 107만6000원으로 집계됐다.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와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각각 115만7000원, 1125만8000원이었다. 1분위 가구 소득은 근로·이전소득 중심으로 1년 전보다 7.6% 늘었고 5분위 가구는 근로소득이 줄며 2.0% 감소했다. 5분위 소득 감소에는 삼성전자·LG 등 대기업의 상여금 감소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통계청의 분석이다. 1분위 가구 소득은 늘고 5분위 가구는 줄면서 소득 불평등 지표는 개선됐다.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의 소득으로 나눈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1분기 5.98배로 지난해 1분기(6.45배)보다 0.47p 하락했다. 상위 20% 소득이 하위 20%의 5.98배라는 의미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해양에너지, 제12차 ESG위원회 개최

해양에너지(대표이사 정희)는 지난 22일 광주시 동구 운림동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에서 제12차 ESG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 해양에너지는 각 기관·학계·시민단체·법조계·언론 등 외부 전문가로부터 향후 발전 정책 제안 및 경영전반에 대한 자문을 받는 등 지속적으로 ESG 위원회를 시행하고 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도시가스 요금 정상화의 필요성과 해양에너지 신규사업 추진현황 등을 공유했다. 특히 해양에너지는 연료전지, 태양광, 가스히트

펌프(GHP) 등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의 현황과 바이오가스, 갑판발전사업, 풍력사업, 전기차충전사업 등 추진 검토 중인 사업들의 기대효과를 설명했다. 이어 전통문화관 내 광주시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작품들이 전시된 무형문화재 작품전시실을 돌아보며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노희용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는 광주시가 주최하고 광주문화재단이 주관하는 '2024 무등올림픽 축제'가 오는 25~26일에 개최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삼성전자 갤럭시 버즈 푸마오 케이스 오늘 출시

삼성전자가 24일 자이언트 판다 푸마오를 모티브로 제작한 '갤럭시 버즈 푸마오 케이스' <사진>를 출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갤럭시 버즈 푸마오 케이스는 지난 2월 출시와 동시에 완판되며 큰 인기를 얻었던 '갤럭시 버즈 루이비통·후이바오 케이스'에 이어, 세 번째로 출시되는 '바오패밀리' 케이스다. 갤럭시 버즈 푸마오 케이스에는 땅 구르기를 즐기는 푸마오의 털빛 '푸롱지(푸마오+누룽지)' 색상이 적용됐으며, 정수리 뿔털의 세밀한 부분까지 살린 것이 특징이다. 한 손에 쏙 들어오는 크기와 부드러운 털 재질은 포근한 느낌을 준다. 삼성닷컴과 삼성강남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가격은 4만4000원이다. 갤럭시 버즈 푸마오 케이스와 '갤럭시 버즈2 프로'를 함께 만날 수 있는 '갤럭시 버즈2 프로 푸마오 패키지'도 판매한다. 갤럭시 버즈2 프로의 컬러 옵션에 따라 화이트,



보라 퍼플, 그라파이트 3종이며, 24일부터 삼성닷컴에서 한정 수량으로 단독 판매한다. 가격은 19만6000원이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버즈 푸마오 케이스' 출시에 맞춰 기존 '루이비통', '후이바오' 케이스까지

한 번에 소장할 수 있는 '갤럭시 버즈 바오패밀리 케이스 팩'도 한정판으로 선보인다. 바오패밀리 케이스 팩은 24일부터 삼성닷컴에서 한정 수량으로 판매되며, 가격은 12만 9800원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마늘·양파 생육부진...수급 영향은 제한적"

농식품부 "재배농가 지원에 총력"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마늘, 양파 생육이 부진한 일부 지역 피해 농가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마늘은 날씨 영향으로 최근 전남과 제주, 경남, 대구 등에서 남도종을 중심으로 발마늘(2차 생장·여러 쪽으로 갈라져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것) 피해가 보고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 2일 발마늘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다음 달 중 피해 농가에 복구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농업재해보험 가입 농가는 농협의 손해 평가를 거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계약재배, 채소가격안정제 등 수급사업에 참여한 생산자에게는 출하를 연기하도록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양파의 경우에도 생육 불량 사례가 보고돼 전남 이월 농업재해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달 초까지 피

해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복구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제주, 전남 지역에서 지난 3월 하순부터 출하되는 조생종 양파의 경우 2~3월 저온 영향, 일조량 부족 등으로 인해 생산이 감소했다. 단위면적당 수확량은 작년 동기 대비 7.1% 줄었고, 평년보다는 9.8% 감소했다. 이달 중순부터 출하되는 중만생종 양파도 주산지인 전남 무안·신안군, 경남 함양·함천군 등에서 생육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다만 농식품부는 이런 생육 부진이 전체 마늘, 양파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5월 셋째주 광주·전남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

광주와 전남 아파트 전세가격이 동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4년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5월 3주(5월 20일 기준) 광주와 전남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前)주 대비 0.03% 전남은 0.04%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는 상승으로 전환했고, 전남은 2주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광주·전남 아파트 전세 가격은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 올해 누적 변동률은 광주 -

0.81%, 전남 0.02%를 기록하고 있다. 광주 5개 자치구 가운데, 전세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서구(0.13%)였고, 광산구와 남구는 각각 0.01% 상승했다. 북구는 보험세를 보였고, 동구만이 유일하게 0.0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해 대비 0.07% 오르며 상승 폭이 커졌다. 이번 주 매매가격 지수는 광주의 경우 0.02% 감소했고, 전남은 보험세를 나타냈다. /김민석 기자 mskim@

## 광주 북구 전남대 후문 상권 살리기 상생 협약

### 민관학 협력 네트워크 구축

침체에 빠진 전남대 후문 상권을 되살리기 위해 광주시 북구가 팔을 걷어 부쳤다. 북구는 전남대 후문 상권 활성화를 위한 민관학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전남대 후문 상권 활성화 상생 협약'을 24일 오후 2시 북구청사 2층 상황실에서 진행한다. 이번 협약에는 북구, 전남대 후문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소상공인진흥공단 광주북부센터, 전남대 총학생회가 함께 힘을 모은다. 전남대 후문 상권은 과거 총장로, 금남로와 함께 광주를 대표하는 상권이었으나 최근 공실률이 증가하는 등 위축돼 왔다는 것이 북구의 설명이다.

이번 협약의 내용은 상권 활성화 인력 및 예산 지원, 상점가 이용의 날 지정 및 상권 수요 확대, 상권 조직 참여 확대 및 안정화, 전남대 재학생 혜택 제공 및 이용 확대 등을 골자로 4개 기관이 유기적인 협력을 한다는 것이다. /김다인 기자 kdi@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721.81(-1.65)
↑ 코스닥	846.58(+0.86)
↓ 금리(국고채 3년)	3.402(-0.007)
↓ 환율(USD)	1362.40(-0.50)